

'미제'에 참여해주신 협업 크리에이터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한 작가 유비호입니다.

전시 타이틀 '미제'는 주역의 64과 중 마지막 과 '화수미제'에서 차용한 주제어로서,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게 되니,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만물의 일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 즉 실패를 둠으로써 새로운 시작, 변화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해진 괴물로 변해버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기후위기와 COVID-19 등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심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가 관습적으로 인식해왔던 그 간의 실행적 가치요소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보며, 앞으로 닥쳐올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며 다양한 트러블과 함께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용감하고 혁신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 여깁니다.

협업 크리에이터님은 행위 당일 전시장 내 '어떤 오브제'를 마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브제를 마주하는 상황에서부터 당신의 창작 작업의 고민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협업 크리에이터님의 창작행위는 철저히 '어떤 오브제'로부터 시작되기를 권고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 앞서, 오브제의 질료, 모양새, 구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브제와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상하며 자신만의 창작 논리로 구성해가기를 권합니다. 이와 동시에 원초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적 내면세계에 집중하면서 낯설고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연출해 나가기 바랍니다. 협업 크리에이터님만의 창작 논리로 전시장 내 '어떤 오브제'와 대립/충돌하거나 침투 및 변이/변태의 작업행위 개입을 통하여, 새롭고 낯선 감각을 배양하고 이를 증식 그리고 성장시키는 작업행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행위 당일 전시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유비호 드림